

#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관련된 부부관계요인: 신혼 초와 현재 결혼생활의 변화

## Couple Relationship Factors Predicting Marital Satisfaction and Divorce Intention Over Time

주성대학 아동문화과  
겸임교수 김 선 영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 수 김 영 희

Dept. of Child Culture, Juseong College  
*Additional Professor* : Kim, Seon Young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Kim, Yeong Hee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nge of couple relationship factors predicting marital satisfaction and divorce intention over time by comparing the couples' first year with their present year of marriage. The couple relationship factors consisted of affection, ambivalence, affectional expression, the expression of negativity. The study subjects 355 married women having preschool children aged 7 years old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6th grade. Data were analyzed by SPSSWIN with the method of MANOVA.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couples in happy groups without divorce intention became less affectionate and demonstrated less affectional expression, and more ambivalence and expression of negativity over time. However, the amount of change was not as large as that of the unhappy group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indicated that the decline of affection and affectional expression and the increase of ambivalence and expression of negativity were probably, as normative, a natural consequence of the

transition from the first year of marriage to a more mature relationship. Therefore, the change over time was not important. However, the amount and aspects of change were the main points which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should pay attention to in the future.

**주제어(Key Words):**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이혼의도(divorce intention), 부부관계(couple relationship)

## 1. 서론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부부관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서로 잘 대처하여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부부관계를 쉽게 해체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가족관계가 부부중심으로 변화한 현대사회에서는 부부의 애정적 기능이 강조되어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표면화되면서 결혼관계가 해체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이러한 결과는 주요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김영희, 1999; Markman, Stanley, & Blumberg, 1994).

부부관계는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이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한 관계이므로 결혼생활은 많은 부부에게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 부부가 서로간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조절하는 과정에서 부부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때 상호인격이 성숙되고 만족스러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이와반면 부부가 갈등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결혼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고 결국은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부부는 어떠한 대인관계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관계이다.

조이혼율이 3.0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인 우리나라의 경우(한국일보, 2003) 이혼의 주된 원인이 가족문제보다는 부부 당사자들 간의 문제로 나타났다(통계청, 2003). 불행한 결혼생활이나 이혼은 당사자들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신체·정서적으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남기게 된다(Gottman & Levenson, 1992). 이에 따라 학자들은 어떤 부부들은 결혼생활이 지속됨에 따라 결혼생활에 대한 책임을 나누는데 비해 어떤 부부들은 왜 별거나 이혼으로 치닫는지를 밝혀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선행연구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이나 갈등해결행동(Karney & Bradbury, 1997), 결혼에 대한 환상이나

기대(Murray, Holmes, & Griffin, 1996), 부부간의 애정(Kayser, 1993) 등이 결혼생활의 불행이나 이혼을 예측하는데 관련성이 높다고 밝혀내면서 이러한 변인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Huston, Caughlin, Houts, Smith & George(2001)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결혼생활의 불행이나 이혼에 관련된 특성들을 애정감소 가설, 스트레스 발생 가설, 성격차이 가설로 설정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결혼생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세 가지 가설은 부부간의 불행이나 이혼을 예측하는데 부부간의 의사소통이나 갈등해결행동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 느끼는 애정이나 성격까지를 다차원적으로 살펴본 가설이어서 최근의 연구자들은 장기적 연구를 통하여 이 세 가지 가설이 결혼만족도와 이혼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연구는 아직 결혼한 부부의 현재 결혼생활의 측면만 살펴보고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결혼생활에 관련된 애정이나 스트레스, 성격차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도한 연구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국내 연구에서 이성성(2001)과 강혜숙(2003)은 이혼의도의 예측변인들로 비교수준, 배우자에 대한 애정, 부부간 의사소통, 결혼만족, 결혼관계의 개입과 투자, 결혼관계 이외의 대안, 주변사람들의 영향 등을 다루었으며 남편과 아내의 이혼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결혼불만족 수준이었으며 남편과 아내 모두에서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이혼이나 별거를 하고 싶은 동기를 유발하게 하지만 이혼을 계획하고 시도하는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결혼생활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불행한 결혼이나 이혼으로 이끄는 요소들이 결혼생활에서 야기되는 행동패턴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결혼생활의 결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이다(Bradbury, 1998). 더욱이 결혼한 후 7년 이내의 이혼

율이 증가하면서 학자들은 결혼 전의 배경이나 신혼 초의 부부관계 요인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떤 변화를 거치는가를 살펴 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Gottman & Levenson,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결혼 만족도와 이혼의도에 관련된 부부관계 요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신혼 초 결혼생활과 현재의 결혼생활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결혼생활을 강화시키고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부부교육이나 치료 및 상담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관련된 현재 부부관계 요인은 어떠한가?
2. 신혼 초와 현재의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관련된 부부관계요인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II. 이론적 배경

Huston과 그의 동료들(2001)은 장기적 연구를 통하여 결혼생활의 불행이나 이혼에 관련된 부부관계 요인을 애정의 감소, 관계에 대한 불안감의 증가,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증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감소로 밝혀내었다. 또한 Gottman(1994)은 실험실 연구를 통하여 신체적 공격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이 이혼을 예측하는 주요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정적인 행동은 결혼생활이 지속됨에 따라 증가하고, 이는 애정의 감소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관련된 부부관계 요인을 부부간의 애정과 부부간의 상호작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1. 부부간의 애정

현대사회에서 결혼의 기본적인 요건은 사랑으로, 부부는 결혼을 통해 개인의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부부관계에서 사랑은 결혼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개념이 되었다. 이혼한 부부와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에서(Kitson & Holmes, 1992) 결혼은 서로에게 도

구적 과업보다 애정적인 지지를 제공하도록 배우자에게 많은 압력을 준다고 하였다. 이것은 애정에 바탕을 둔 결혼관계에서 애정이 감소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혼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김형선, 1997). 즉 애정은 부부의 전반적인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중요한 변수로, 깊은 정서적 유대와 서로 보살피고 매력을 느끼고 신뢰하고 친밀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결혼생활에서 이러한 애정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간과되어 왔다(Riehl-Emde, Thomas, & Willi, 2003).

Sternberg(1986)는 사랑의 삼각 이론에서 사랑을 친밀감, 책임감, 열정의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 세 구성요소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각기 다르게 역동적으로 변화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친밀감은 사랑하는 관계에서 경험하는 가까움, 연결감, 유대감을 말한다. 열정은 사랑하는 관계에서 낭만, 신체적 매력, 성적인 극치 등으로 이끄는 강렬한 욕망을 의미하고, 책임감은 누군가를 사랑하겠다는 결정과 그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다. 부부간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단순한 감정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인성 및 역할 체계의 결합으로 결혼기간에 따라 그 구조가 질적으로 변화한다(강진경, 신수진, 최혜경, 2001). 이경성(2001)은 배우자에 대한 애정을 상대의 행복을 지원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친밀성과 배우자에 대한 성적 열정이라고 하였다.

데이트 관계에 있는 커플들을 4개월 간격으로 조사한 연구(Berg & McQuinn, 1986)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관계의 해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이것은 신혼부부들의 첫 2년 동안의 부부관계에서의 변화 가운데 13년 후의 결혼생활을 예측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 본 연구(Huston, et al., 2001)에서도 잘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애정의 감소는 이혼한 사람과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면서 불행한 결혼과 이혼의 예측을 애정감소 가설로 설명하였다.

애정감소 가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부간의 애정이 감소하는 동시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모호성의 증가로 인한 불안감이 증가한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결혼 초기 부부는 애정이 크기 때문에 두 부부가 부정적인 감

정이나 갈등은 회피하고, 애정표현을 자주 하게 되며, 자신의 파트너에게 최대한 매력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되기 위하여 파트너의 기대에 맞추어 행동한다. 또한 두 부부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행복한 결혼생활은 두 부부가 사랑을 깊게 느껴야만 하고, 그들의 관계에 대하여 모호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 때 부부는 실망을 하게 되고, 애정을 상실하게 되고, 관계에 대해 모호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애정이 자신이 기대했던 바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부부는 불행해지고 결국은 이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Huston, McHale, & Crouter, 1986; Brehm, 1992; Karney & Bradbury, 1997). 즉, 결혼생활의 실제와 이상의 차이가 너무 커서 결혼생활에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이다.

Brehm(1992)은 사람들은 현실 생활에 적합한 사람보다 자신이 상상한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Murray 등(1996)은 사실에 약간의 아름다움을 가미한 환상을 갖는 결혼생활은 부부관계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지만, 낭만적인 환상만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한 부부는 서로 실망이 너무 커서 결혼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Karney & Bradbury(1997)의 연구에서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대인관계 사건과 부부간의 강한 애정과 같은 긍정적인 대인관계 사건의 비율을 통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결혼생활의 환상이 사라지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에 대해 Kayser(1993)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사라지는 것은 사랑과 친밀감의 상실을 의미하며, 부부는 배우자의 행동이 자신들이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꿈이나 환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애정의 감소를 느낀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연구(이경성, 2001)에서는 배우자에게 친밀감과 애정을 느낄수록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이혼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경희(1998)는 젊은 부부일수록 애정이나 친밀감의 욕구가 더 강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혼하는 사람들의 결혼해제 이유는 서로의 관계에서 관심의 상실과 애정의 감소가 부부관계에 대한 모호성을 이끌게 되고, 이러한 요인들이 이혼을 예측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하였다(Buehlman, Gottman, & Katz, 1992; Kayser, 1993; Kitson, 1992). 그러한 주

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결혼생활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결혼생활의 불행이나 이혼을 예측하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지 않다

## 2. 부부간의 상호작용

결혼생활에서 부부간의 상호작용은 결혼생활의 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중요한 요인이다. 선행연구는 부부사이의 파괴적인 의사소통과 같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긍정적인 상호작용보다 더 낮은 관계만족과 더 높은 비율의 이혼이나 부부불화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Gottman & Notarius, 2000; Karney & Bradbury, 1995; Markman & Hahlweg, 1993). 또한 Stanley, Markman, & Whitton(2002)도 의사소통은 부부간의 갈등이나 이혼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그 영향력에 있어서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부정적인 의사소통의 영향력이 매우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어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상호작용 과정 연구는 의사소통 방식, 갈등해결방식 등을 주로 다룬다. Stanely와 동료들(1995)은 의사소통과 갈등은 상호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독립적이면서 상호 연관된 개념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일치해서 김영희(1999)의 연구는 의사소통행동과 갈등해결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서로 상호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의사소통 행동이 갈등해결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반대인 경우보다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두 변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각기 가지면서도 상호연관성을 가지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올바른 의사소통은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갈등해결 행동은 의사소통을 매개체로 하여 결혼생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영희, 1999). 이것은 부부의 갈등해결 행동은 의사소통 기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이 가족치료에서 중요한 접근법임을 말해준다. 반면, 의사소통 기술 그 자체보다는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소통 패턴을 더 강조하는 연구자도 있다(Jacobson, 1989; Greenburg & Johnson, 1986).

Huston 등(2001)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증가가 부부의 결혼생활에 문제점이나 이혼을 야기 시킨다고 하였다. 즉 부정적인 행동의 증가는 이혼의 시기를 예측해주고, 초기에 이혼하는 부부들은 후기에 이혼하는 부부들보다 결혼 후 2년 동안 부정적인 행동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불행하면서도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들은 이혼하는 부부들보다 부정적인 행동의 증가가 적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보다 부정적인 행동의 증가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자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정적인 행동이 증가하고 긍정적인 행동이 감소하여 불행한 결혼생활과 이혼을 야기시키는 것을 스트레스 발생 가설로 설명하였다(Huston & Vangelisti, 1991; Gottman, 1994; Bradbury, Cohan, & Karney, 1998; Jacobson & Margolin, 1979). 이 가설은 결혼생활이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라도 부부관계에서 부정적인 행동이나 사건의 발생이 너무 증가하면 관계가 개선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Fincham & Bradbury, 1992).

두 사람의 관계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으로 인해 생긴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관계를 침식하고(Bradbury, Cohan, & Karney, 1998), 부정적인 감정을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결혼만족과 안정성은 손상된다(Gottman, 1994; Huston & Chorost, 1994; Noller, Feeney, Bonnell, & Callan, 1994). Gottman(1994)은 불행한 부부들은 스트레스가 강해지면 서로 마음속으로 저항하고, 더 서로를 경멸하게 되고,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결정하게 되면, 그들은 서로 의존하는 것이 감소하게 되고 이혼을 고려하게 된다고 하여, 스트레스 발생 가설을 지지하였다.

Christensen & Sullaway(1984)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부간의 특징적 의사소통패턴을 긍정적, 부정적, 요구-회피 패턴으로 나누었다. 긍정적 의사소통은 당면한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상대방을 더 깊게 이해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과 행복을 더욱 증진시킨다. 부정적 의사소통은 부부가 분노, 원망,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 하여 부부관계가 악화되게 만든다. 요구-회피적 의사소통은 부부 중 한 사람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변화를

바라는 대화를 시도하는 반면 다른 배우자는 대화를 끝내려고 하거나 대화의 주제를 바꾸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대화 장소를 떠남으로써 대화 자체를 회피한다.

이러한 상호작용패턴들은 결혼만족과 이혼의도의 예측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Gottman & Levenson, 2000).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파괴적 언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나 성적 매력, 헌신, 우정과 신뢰가 손상되어 결혼생활이 불행하게 되고 이혼에 이르게 된다(Scott, Howard, Michelle, & Leber, 1995). 이러한 의사소통에서의 문제가 결혼만족과 이혼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어 왔다(이경성, 2001; Rogge & Bradbury, 1999; Bodenmann, 1997; Skaldeman & Montgomery, 1999).

최규련(1995)은 부부갈등은 부부가 가정생활 중에 배우자와의 사이에 겪는 긴장·갈등으로 부부갈등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아진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Bahr(1989)는 갈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였다. 즉 갈등은 가족간에 상호작용과 감정교환을 촉진시키고, 가족간에 의견교환으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위치나 규칙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역할을 하며, 가족 개개인의 감정이나 욕구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이것은 갈등이 표면에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결혼에 실패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잠재해 있던 어려움이나 욕구를 표출하게 되어 이제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점을 발견할 수 있음을 뜻한다. 즉 부부갈등은 위협과 기회의 두 속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Kurdeck(1995)은 갈등해결방식을 충돌, 회피, 복종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밝혔다. 남편과 아내가 관계 양상에 다른 양태를 보이긴 했지만 갈등해결방식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곧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아내의 복종, 충돌, 회피 수준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내의 회피 방식은 남편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느냐에 상관없이 서로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김영희, 1999).

이상과 같이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부부

갈등을 발생시킨다(김진희, 김경신, 1998). 이러한 부부간의 갈등은 개인적, 상호적 노력에 의해 회복되기도 하지만 이런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심해지면 이혼으로 발전하여 부부간은 물론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영자, 장영애, 2002). 반면에 갈등을 잘 관리하면 부부의 결합을 더 강화시킬 수 있고 배우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어 상호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게 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과 자료분석

연구대상은 청주시 소재 유치원 7세반 과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는 자녀를 둔 기혼여성 355명이다.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여성이 지각한 결혼생활의 불만족도가 이혼을 더 잘 예측하고 이혼이나 별거를 여성이 먼저 시도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Riehl-Emde, Thomas, & Willi, 2003). 유치원 7세반과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기혼여성에게 배부한 이유는 이혼의 절반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에 발생하고 결혼기간이 14년 정도 되었을 때 결혼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최근의 연구결과(Gottman & Levenson, 2000)에 의해서이다. 자료는 질문지 조사방법으로 수집되었으며,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ANOVA 분석을 하였다.

#### 2. 측정도구

##### 1)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따른 집단구분

본 연구는 Huston과 그의 동료들(2001)이 연구한 바와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결혼생활의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하여 집단을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따라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 불행하지만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 불행하고 이혼의도가 있는 세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고, 그 두 집단의 사람들을 이혼의도의 유무에 따라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 2) 부부관계

부부관계는 신혼 초와 현재 결혼생활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신혼 초 부부관계는 결혼한 후 1년 동안의 결혼생활을 회상하여 응답하도록 하였고, 현재 결혼생활은 지난 2개월 동안의 결혼생활을 회상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 (1) 부부간의 애정

Braiker & Kelley(1979)의 관계질문지(Relationship Questionnaire)를 번안·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13문항으로 두 하위척도 -애정척도와 관계의 불안감 척도 -로 이루어졌다. 애정척도는 배우자에게 느끼는 애정이나 친밀감을 평가하는 것으로 7문항으로 이루어졌고, 관계의 불안감 척도는 배우자에게 느끼는 실망, 외로움, 애정의 소원함 등을 묻는 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으로 되어있다.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값이 신혼 초의 애정 .87, 신혼 초의 관계의 불안감 .85, 현재의 애정 .90, 현재의 관계의 불안감 .83 이었다.

##### (2) 부부간의 상호작용

Wills, Weiss, & Patterson(1974)의 결혼행동(Marital Behavior)척도를 번안·수정하여 평가하였다. 이 척도는 부부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긍정적 행동 10문항과 부정적인 상호작용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부정적 행동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으로 되어 있다.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값이 신혼 초의 긍정적 상호작용 .86, 신혼 초의 부정적 상호작용 .85, 현재의 긍정적 상호작용 .88, 현재의 부정적 상호작용 .85 이었다.

### IV.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변 인	구 분	빈도(%)	변 인	구 분	빈도(%)
아내연령	35세 미만	140( 39.4)	남편연령	35세 미만	62( 17.5)
	35세 이상-40세 이하	147( 41.4)		35세 이상-40세 이하	162( 45.6)
	41세 이상	68( 19.2)		41세 이상	131( 36.9)
	계	355(100.0)		계	355(100.0)
아내직업	전문/자유직	14( 4.0)	남편직업	전문/자유직	33( 9.5)
	사무/기술직	44( 12.7)		사무/기술직	181( 51.9)
	자영업	33( 9.5)		자영업	92( 26.4)
	판매서비스/생산기능직	22( 6.3)		판매서비스/생산기능직	37( 10.6)
	가정주부	234( 67.4)		무직	6( 1.7)
	계	347(100.0)		계	349(100.0)
아내학력	고졸이하	213( 60.7)	남편학력	고졸이하	135( 38.1)
	대졸이상	138( 39.3)		대졸이상	219( 61.9)
	계	351(100.0)		계	354(100.0)
결혼기간	7년 이하	96( 27.2)	교제기간	1년 미만	113( 32.2)
	8년 - 14년 이하	181( 51.3)		1년 - 3년 미만	174( 49.6)
	15년 이상	76( 21.5)		3년 - 5년 미만	34( 9.7)
	계	353(100.0)		5년 이상	30( 8.5)
	계	353(100.0)		계	351(100.0)
자녀 수	1명	39( 11.0)	가족형태	핵가족	314( 91.8)
	2명	253( 71.7)		대가족	28( 8.2)
	3명 이상	61( 17.3)		계	342(100.0)
	계	353(100.0)		계	342(100.0)
아내종교	유	218( 62.3)	가족수입	150만원 미만	44( 12.5)
	무	132( 37.7)		150-300만원 미만	204( 58.0)
				300만원 이상	104( 29.5)
	계	350(100.0)		계	352(100.0)

## 2.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관련된 현재 부부관계 요인의 집단간 차이

현재 결혼생활의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따라 구분된 세 집단간에 부부관계 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MANOVA를 실시한 결과 Wilks' Lambda = .38 ( $p < .001$ )로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부관계의 주효과( $F=21.05$ ,  $p < .00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종속변인별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현재 부부관계는 애정( $F=133.54$ ,  $p < .001$ ), 관계의 불안감( $F=156.49$ ,  $p < .001$ ), 긍정적 상호작용( $F=90.47$ ,  $p < .001$ ), 부정적 상호작용( $F=125.43$ ,  $p < .001$ ) 요인에서 세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현재 부부관계에서 애정은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이 가장 높았고, 불행하고 이혼의도가 있는 집단은 애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에 대한 불안감은 불행하고 이혼의도가 있는 집단이 가장 높았고,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관계의 불안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Huston 등(2001)의 연구에서 애정의 감소는 이혼한 사람과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긍정적 상호작용은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이 다른 집단들보다 긍정적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행하지만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과 불행하고 이혼의도가 있는 집단간에는 긍정적 상호작용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할수록 부

〈표 2〉 현재 부부관계 요인들의 집단간 차이

종 속 변 인	집 단	평균(표준편차)	F
애 정	행복하고 이혼의도 없음	2.97(.51) c	133.54***
	불행하지만 이혼의도 없음	2.28(.41) b	
	불행하고 이혼의도 있음	2.02(.46) a	
관계의 불안감	행복하고 이혼의도 없음	1.84(.41) a	156.49***
	불행하지만 이혼의도 없음	2.52(.37) b	
	불행하고 이혼의도 있음	2.81(.56) c	
긍정적 상호작용	행복하고 이혼의도 없음	2.86(.48) b	90.47***
	불행하지만 이혼의도 없음	2.28(.37) a	
	불행하고 이혼의도 있음	2.15(.47) a	
부정적 상호작용	행복하고 이혼의도 없음	1.22(.25) a	125.43***
	불행하지만 이혼의도 없음	1.48(.41) b	
	불행하고 이혼의도 있음	1.94(.46) c	

\*\*\*p&lt;.001

부의 전반적인 결혼생활의 만족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임승락, 199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부정적 상호작용은 불행하고 이혼의도가 있는 집단이 가장 높았고,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부갈등의 정도가 높아 질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아진다고 한 최규련(199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결혼생활에서 이혼 가능성은 부정적인 의사소통이나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상호작용과 강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신혼 초와 현재의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따른 부부관계 요인의 변화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따라 구분한 신혼 초 세 집단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현재의 집단으로 변화한 것

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집단 간 변화는  $\chi^2=119.96$ 으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신혼 초에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었던 집단의 78.2%는 현재결혼생활에서도 여전히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으로 변화가 없었지만, 14.5%는 불행하지만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으로, 7.3%는 불행하고 이혼의도가 있는 집단으로 변화하였다. 불행하거나 이혼의도가 있는 집단으로의 변화는 애정이 감소하거나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배우자에게 실망하거나 긍정적 상호작용이 감소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증가(Huston, et al., 2001)로 인해 결혼생활의 만족도를 감소시키고 이혼 가능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신혼 초에 불행하지만 이혼의도가 없었던 집단의 48.1%는 현재결혼생활에서도 여전히 불행하지만 이혼의

〈표 3〉 신혼 초와 현재의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따른 집단간 변화

구 분	현 재			계	$\chi^2$	
	행복하고 이혼의도 없음	불행하지만 이혼의도 없음	불행하고 이혼의도 있음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신혼 초	행복하고 이혼의도 없음	129(78.2)	24(14.5)	12(7.3)	165(100.0)	119.96***
	불행하지만 이혼의도 없음	16(30.8)	25(48.1)	11(21.2)	52(100.0)	
	불행하고 이혼의도 있음	19(20.9)	21(23.1)	51(56.0)	91(100.0)	
계	빈도(%)	164(53.2)	70(22.7)	74(24.0)	308(100.0)	

\*\*\*p&lt;.001



도가 없는 집단으로 변화가 없었지만, 30.8%는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으로 변화하였고 21.2%는 불행하고 이혼의도가 있는 집단으로 변화하였다.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으로 변화한 경우는 신혼 초보다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였거나(임정빈, 고보선, 1995) 또는 부부가 결혼초기의 낮은 결혼만족도를 극복하기 위해 부부관계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방현주, 이기숙, 2002) 등의 노력으로 결혼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반면, 여전히 불행하고 이혼의도가 있는 집단으로 변한 경우는 소득이 많이 감소하였거나, 반대로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의 획득이나 배우자 이외의 성관계 상대 등의 등장과 같은 대안의 증가(Levinger, 1979)가 결혼관계의 해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혼의도가 있는 집단으로 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혼 초에 불행하고 이혼의도가 있었던 집단의 56%는 현재도 여전히 불행하고 이혼의도가 있는 집단으로 변화가 없었지만, 23.1%는 불행하지만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으로, 20.9%는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으로 변화하였다.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으로의 변화는 결혼초기에는 배우자의 생활습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결혼생활이 지속됨에 따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부부간의 수용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고 이것이 결혼생활의 적응도를 높여주어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이 집단이 여전히 불행하지만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으로 변화한 것은 자녀에 대한 의무감, 이혼비

용, 가족이나 친지 등의 이혼반대 압력,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아직은 부정적인 이혼에 대한 시각 등이 이혼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혼 초 부부관계에서의 애정, 관계의 불안감, 긍정적인 상호작용,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현재 부부관계에서는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시간과 집단으로 살펴해보았다.

1) 애정의 변화

신혼 초에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었던 집단이 현재 결혼생활에서 행복하고 이혼의도 없는 집단, 불행하지만 이혼의도 없는 집단, 불행하고 이혼의도 있는 집단의 세 집단으로 변화하였을 때 애정의 변화는 <표 4>와 같다. 애정의 변화는 시간(F=61.86, p<.001)과 집단별(F=20.70,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요인간의 상호작용효과(F=11.61,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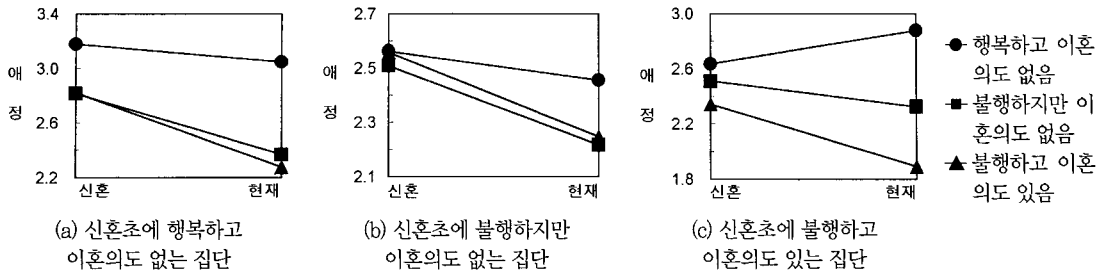
<그림 1>의 (a)에 나타난바와 같이 현재 결혼생활에서의 애정은 신혼 초보다 감소하였으며 집단간에도 애정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상호작용효과로 현재 결혼생활에서도 여전히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애정이 조금 감소했고, 불행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많이 감소했으며, 불행하고 이혼의도가 있는 집단은 애정이 아주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 초에 불행하지만 이혼의도가 없었던 집단이 현재의 세 집단으로 변화하였을 때 애정의 변화는 <표 4>와 같이 시간(F=13.44, p<.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

<표 4> 신혼초와 현재의 집단별 애정의 변화

구 분				현 재			F	
				행복하고 이혼의도없음	불행하지만 이혼의도없음	불행하고 이혼의도있음		
신혼 초	행복하고 이혼의도없음	신혼 초 애정	M(SD)	3.18(.48)	2.82(.37)	2.82(.48)	시간 집단 시간*집단	61.86*** 20.70*** 11.61***
			현재 애정	M(SD)	3.05(.52)	2.37(.37)		
		불행하지만 이혼의도없음	신혼 초 애정	M(SD)	2.56(.43)	2.51(.51)		
	현재 애정	M(SD)		2.46(.31)	2.22(.45)	2.25(.58)		
	불행하고 이혼의도있음	신혼 초 애정	M(SD)	2.64(.45)	2.51(.48)	2.34(.49)	시간 집단 시간*집단	6.46* 20.77*** 16.95***
	현재 애정		M(SD)	2.88(.31)	2.33(.39)	1.89(.42)		

\*p<.05 \*\*p<.01 \*\*\*p<.001



〈그림 1〉 신혼 초와 현재의 집단별 애정의 변화

타났다. 즉 현재 결혼생활에서의 세 집단의 애정이 신혼 초 보다 감소하였으나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비교적 애정 감소가 적었다. 집단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요인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없었고, 그 결과는 〈그림 1〉의 (b)로 나타내었다.

신혼 초에 불행하고 이혼의도가 있었던 집단이 현재의 세 집단으로 변화하였을 때 애정의 변화는 〈표 4〉와 같이 시간( $F=6.46, p<.05$ )과 집단별( $F=20.77,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요인간의 상호작용효과( $F=16.95, p<.001$ )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현재 결혼생활에서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애정이 많이 증가했고, 여전히 불행하고 이혼의도가 있는 집단은 현저하게 많이 감소했고, 불행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애정이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를 〈그림 1〉의 (c)로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신혼 초와 현재의 집단별 애정의 변화에

서 시간의 효과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현재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집단효과와 상호작용효과로 애정이 조금 감소하거나 증가하였다. 반면에 불행한 집단은 모두 이혼의도와는 관계없이 애정이 많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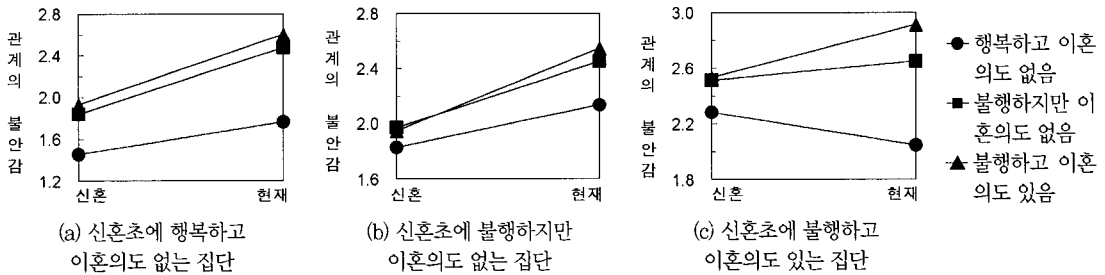
2) 관계의 불안감의 변화

신혼 초에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었던 집단이 현재 결혼생활에서 세 집단으로 변화하였을 때 관계의 불안감의 변화는 〈표 5〉와 같다. 시간( $F=111.99, p<.001$ )과 집단( $F=36.07, p<.001$ )과 상호작용효과( $F=9.14, p<.00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그림 2〉에 나타났다. 〈그림 2〉의 (a)에서 보여지듯이 시간과 집단의 효과로 인해 전반적으로 관계의 불안감이 증가하였으나 그 수준이 낮았으며 특히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더 낮게 나타났다. 현재 결

〈표 5〉 신혼초와 현재의 집단별 관계의 불안감의 변화

구 분				현 재			F	
				행복하고 이혼의도없음	불행하지만 이혼의도없음	불행하고 이혼의도있음		
신혼 초	행복하고 이혼의도없음	신혼 초 관계의 불안감	M(SD)	1.45(.41)	1.84(.39)	1.93(.57)	시간	111.99***
		현재 관계의 불안감	M(SD)	1.77(.42)	2.48(.33)	2.60(.64)	집단	36.07***
						시간*집단	9.14***	
	불행하지만 이혼의도없음	신혼 초 관계의 불안감	M(SD)	1.83(.44)	1.97(.49)	1.95(.29)	시간	78.84***
		현재 관계의 불안감	M(SD)	2.13(.40)	2.45(.40)	2.55(.52)	집단	1.98
						시간*집단	2.29	
불행하고 이혼의도있음	신혼 초 관계의 불안감	M(SD)	2.28(.52)	2.52(.56)	2.53(.66)	시간	2.25	
	현재 관계의 불안감	M(SD)	2.05(.31)	2.65(.38)	2.91(.55)	집단	9.75***	
					시간*집단	8.80***		

\*\*\* $p<.001$



〈그림 2〉 신혼 초와 현재의 집단별 관계의 불안감의 변화

혼생활에서도 여전히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관계의 불안감이 조금 증가했고 불행하지만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조금 더 증가했고 불행하고 이혼의도가 있는 집단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 초에 불행하지만 이혼의도가 없었던 집단이 현재의 세 집단으로 변화하였을 때 관계의 불안감의 변화는 시간( $F=78.84, p<.001$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관계의 불안감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요인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그 결과를 〈그림 2〉의 (b)로 나타내었다.

신혼 초에 불행하고 이혼의도가 있었던 집단은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집단효과( $F=9.75, p<.001$ )와 상호작용효과( $F=8.80, p<.001$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효과와 상호작용효과로 현재 결혼생활에서도 여전히 불행하고 이혼의도가 있

는 집단은 관계의 불안감이 뚜렷하게 많이 증가했고 불행하지만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조금 증가했고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림 2〉의 (c)로 나타내었다.

따라서 신혼 초와 현재의 집단별 관계의 불안감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현재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조금 증가하거나 감소하였고 다른 집단에 비해 그 수준이 낮았다. 반면 불행한 집단들은 전반적으로 많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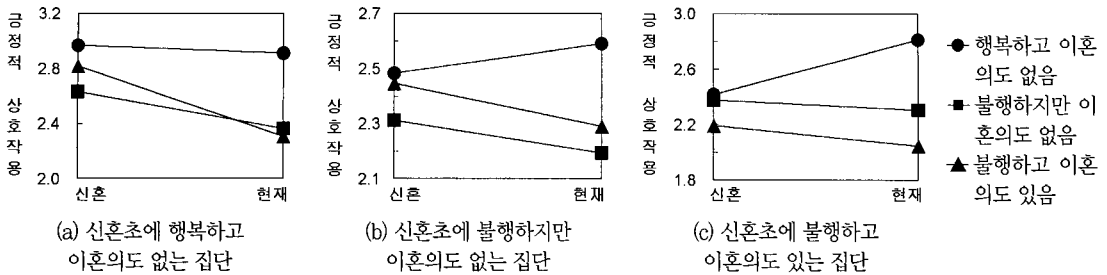
3) 긍정적 상호작용의 변화

신혼 초에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었던 집단이 현재 결혼생활에서 행복하고 이혼의도 없는 집단, 불행하지만 이혼의도 없는 집단, 불행하고 이혼의도 있는 집단의 세 집단으로 변화하였을 때 긍정적 상호작용의 변화는 〈표 6〉과 같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시간( $F=$

〈표 6〉 신혼초와 현재의 집단별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변화

구 분				현 재			F	
				행복하고 이혼의도없음	불행하지만 이혼의도없음	불행하고 이혼의도있음		
신혼 초	행복하고 이혼의도없음	신혼 초 긍정적 상호작용	M(SD) 2.97(.45)	2.63(.40)	2.82(.45)	시간 집단 시간*집단	70.36*** 13.34*** 19.27***	
		현재 긍정적 상호작용	M(SD) 2.91(.47)	2.36(.39)	2.31(.51)			
	불행하지만 이혼의도없음	신혼 초 긍정적 상호작용	M(SD) 2.48(.34)	2.31(.36)	2.45(.59)			시간 집단 시간*집단
		현재 긍정적 상호작용	M(SD) 2.59(.48)	2.19(.34)	2.29(.60)			
	불행하고 이혼의도있음	신혼 초 긍정적 상호작용	M(SD) 2.42(.56)	2.38(.50)	2.19(.43)	시간 집단 시간*집단	2.04 10.39*** 15.45***	
		현재 긍정적 상호작용	M(SD) 2.81(.42)	2.30(.40)	2.05(.43)			

\*p<.05 \*\*\*p<.001



〈그림 3〉 신혼 초와 현재의 집단별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변화

70.36,  $p < .001$ ), 집단간( $F=13.34$ ,  $p < .001$ ), 상호작용효과( $F=19.27$ ,  $p < .001$ )가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는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그림 3〉의 (a)에서 보여지듯이 시간과 집단효과로 인해 현재 결혼생활에서도 여전히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약간 감소했지만 불행하지만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많이 감소했고 불행하고 이혼의도가 있는 집단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현저하게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 초에 불행하지만 이혼의도가 없었던 집단이 현재의 세 집단으로 변화하였을 때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변화는 〈표 6〉과 같이 시간과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요인간의 상호작용효과( $F=3.40$ ,  $p < .05$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는 〈그림 3〉의 (b)로 나타내었다. 상호작용효과는 크지 않지만 그 효과로 인해 현재 결혼생활에서도 여전히 불행하지만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조금 감소했고 불행하고 이혼의도가 있는 집단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현저하게 많이 감소했다. 반면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신혼 초 보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 초에 불행하고 이혼의도가 있었던 집단이 현재의 세 집단으로 변화하였을 때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변화는 〈표 6〉과 같이 시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집단간( $F=10.39$ ,  $p < .001$ ), 상호작용효과( $F=15.45$ ,  $p < .001$ )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는 〈그림 3〉의 (c)로 나타내었다. 집단효과와 상호작용효과로 인해 현재 결혼생활에서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아주

많이 증가했고 여전히 불행하고 이혼의도가 있는 집단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많이 감소했고 불행하지만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혼 초와 현재의 집단별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변화는 현재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증가하거나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불행한 집단은 모두 감소하였다.

#### 4) 부정적 상호작용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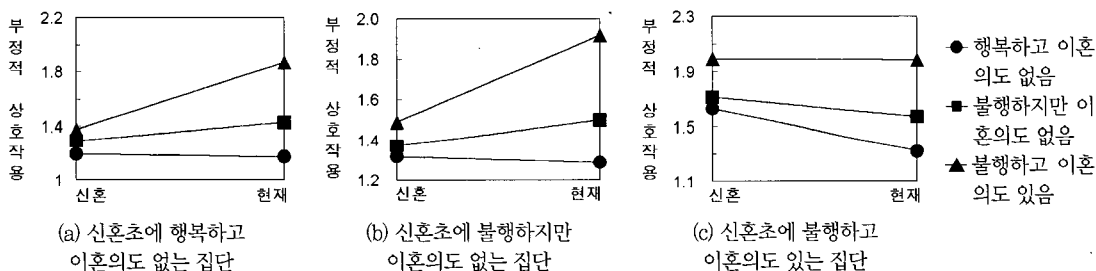
신혼 초에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었던 집단이 현재 결혼생활에서 행복하고 이혼의도 없는 집단, 불행하지만 이혼의도 없는 집단, 불행하고 이혼의도 있는 집단의 세 집단으로 변화하였을 때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변화는 〈표 7〉과 같이 시간( $F=67.80$ ,  $p < .001$ ), 집단간( $F=23.85$ ,  $p < .001$ ), 요인간 상호작용효과( $F=39.14$ ,  $p < .001$ )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는 〈그림 4〉로 나타내었다. 〈그림 4〉의 (a)에서 보여지듯이 현재 결혼생활에서도 여전히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감소했고 불행하지만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조금 증가했고 불행하고 이혼의도가 있는 집단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현저하게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 초에 불행하지만 이혼의도가 없었던 집단이 현재의 세 집단으로 변화하였을 때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변화는 〈표 7〉과 같이 시간( $F=12.45$ ,  $p < .01$ ), 집단별( $F=5.53$ ,  $p < .01$ ), 상호작용효과( $F=6.05$ ,  $p < .01$ )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를 〈그림 4〉의 (b)에 나타내었다. 즉 현재 결혼생활에서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신혼 초보다 감소했고

〈표 7〉 신혼초와 현재의 집단별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변화

구분	현재			F			
	행복하고 이혼의도없음	불행하지만 이혼의도없음	불행하고 이혼의도있음				
신혼 초	행복하고 이혼의도없음	신혼 초 부정적 상호작용 M(SD)	1.19(.22)	1.30(.25)	1.38(.25)	시간 집단 시간*집단	67.80*** 23.85*** 39.14***
		현재 부정적 상호작용 M(SD)	1.17(.22)	1.42(.36)	1.87(.49)		
	불행하지만 이혼의도없음	신혼 초 부정적 상호작용 M(SD)	1.32(.23)	1.37(.31)	1.49(.36)		
		현재 부정적 상호작용 M(SD)	1.29(.28)	1.50(.48)	1.92(.33)		
	불행하고 이혼의도있음	신혼 초 부정적 상호작용 M(SD)	1.63(.34)	1.71(.47)	1.99(.60)	시간 집단 시간*집단	14.16*** 11.20*** 4.80*
		현재 부정적 상호작용 M(SD)	1.32(.19)	1.57(.42)	1.98(.47)		

\*p<.05 \*\*p<.01 \*\*\*p<.001



〈그림 4〉 신혼 초와 현재의 집단별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변화

여전히 불행하지만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조금 증가했고, 불행하고 이혼의도가 있는 집단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뚜렷하게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 초에 불행하고 이혼의도가 있었던 집단이 현재의 세 집단으로 변화하였을 때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변화는 〈표 7〉과 같이 시간(F=14.16, p<.001), 집단간(F=11.20, p<.001), 상호작용효과(F=4.8, p<.05) 모두가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는 〈그림 4〉의 (c)로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의 효과로 인해 현재 결혼 생활에서 여전히 불행하고 이혼의도가 있는 집단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약간 감소했고 여전히 불행하지만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많이 감소했고 반면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혼 초와 현재의 집단별 부정적인 상호작용

의 변화는 모든 집단에서 시간, 집단간, 요인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현재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감소하였고 불행한 집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부부관계의 애정과 관계의 불안감은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따라 구분한 세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애정은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관계의 불안감은 불행하고 이혼의도가 있는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부부관계의 긍정적·부정적 상호작용은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따라 구분한 세 집단간에 차이를

보여주었다.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이 다른 집단들보다 긍정적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행하고 이혼의도가 있는 집단이 부정적 상호작용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애정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현재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애정이 조금 감소하거나 증가한 반면 현재 불행한 집단은 애정이 신흠 초보다 많이 감소하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관계의 불안감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현재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관계의 불안감이 조금 증가하거나 감소하였고 다른 집단에 비해 그 수준이 낮았다. 반면 불행한 집단들은 관계의 불안감이 전반적으로 많이 증가하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변화는 현재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증가하거나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불행한 집단들은 모두 감소하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변화는 현재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감소하였으나 불행한 집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현재 결혼생활에서의 애정, 관계의 불안감, 긍정적·부정적 상호작용이 집단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애정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관계의 불안감이나 부정적 상호작용은 불행하고 이혼의도가 있는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불행하고 이혼의도가 있는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애정이 가장 낮고, 관계의 불안감이 가장 높으며,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가장 높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정이나 부부간의 상호작용은 결혼생활과 매우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기존의 선행연구는 결혼만족도와 이혼예측에 관련된 변인을 의사소통이나 갈등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어 애정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미래연구는 결혼생활에서 애정의 증가와 관계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신흠 초와 현재의 부부관계 요인이 집단별로 변화함을 보여주었다. 다른 집단에 비해 불행하지만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변화의 폭이 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으로 변화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다. 또한 불행하고 이혼의도가 있는 집단이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으로의 변화의 폭도 작지 않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래연구와 교육과 상담의 개입은 불행하지만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뿐만 아니라 불행하고 이혼의도가 있는 집단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초점을 두어 이러한 변화에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밝힐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집단간에 부부관계 요인에서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과 불행하지만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간에 행복과 불행을 분류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두 집단의 어떤 요인이 이혼의도가 없는 것을 공유하는가에 대한 해석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미래연구는 세 집단간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 변인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현재 행복하고 이혼의도가 없는 집단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애정이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증가하거나 약간만 감소하였고 관계의 불안감이나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조금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부부들이 애정이나 긍정적 상호작용을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한 것을 밝히면 이혼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의 변화를 알아보는데 집단을 구분해서 결혼생활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를 사용해서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의 평균을 사용하여 시계열분석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선행연구는 여성들이 지각한 결혼생활의 불만족도가 별거나 이혼을 더 잘 예측한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결혼생활의 불행과 이혼의도를 살펴보는 데 기혼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아내와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르므로(강혜숙, 2003) 부부를 쌍으로 연구하여 아내와 남편이 지각하는 결혼생활을 비교하고 이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이혼의도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

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진경, 신수진, 최혜경(2001). 결혼지속연수에 따른 한국 부부의 사랑구조의 변화 양상.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51-66.
- 강혜숙(2003). 결혼초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1999).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관련된 이론적 모형. *한국생활과학회지*, 5(2), 53-72.
- 김진희, 김경신(1998).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스트레스 인지수준. *대한가정학회지*, 36(8), 63-76.
- 김형선(1997). 배우자선택과정과 결혼의 질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현주, 이기숙(2002).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결혼초기 부부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에 관한 연구: 유아기 가족의 부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11), 39-54.
- 이경성(2001).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여성*, 6(2), 97-119.
- 이경희(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유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자, 장영애(2002). 결혼초기 주부가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와 갈등관리 방법 및 갈등결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1), 79-93.
- 임승락(1998). 부부간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생활 만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정빈, 고보선(1995). 도시 신흠기 가계의 가정경제 안정도 인지와 가정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3(2), 1-18.
- 최규련(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99-113.
- 통계청(2003). 2002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한국일보. 2003년 3월 27일.
- Bahr, S. J. (1989). *Family interaction*. N.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Berg, J. H., & McQuinn, R. D. (1986). Attraction and exchange in continuing and noncontinuing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5), 942-952.
- Bodenmann, G. (1997). Can divorce be prevented by enhancing the coping skills of couple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7, 177-194.
- Bradbury, T. N. (1998). Introduction: The developmental course of marital dysfunction. In T. N. Bradbury(Ed.), *The developmental course of marital dysfunction*, 1-8.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adbury, T. N., Cohan, C. L., & Karney, B. R. (1998). Optimizing longitudinal Cohanresearch for understanding and prevention marital dysfunction. In T. N. Bradbury(Ed.), *The developmental course of marital dysfunction*, 279-311.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aiker, H., & Kelley, H. H. (1979). Conflict in the development of close relationships. In R. L. Burgess & T. L. Huston(Eds.), *Social exchange in developing relationships*, 135-168. New York: Academic Press.
- Brehm, S. S. (1992). *Intimate relationships*(2nd ed.). New York: McGraw-Hill.
- Buehlman, K. T., Gottman, J. M., & Katz, L. F. (1992). How a couple views their past predicts their future: Predicting divorce from an oral history interview.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5, 295-318.
- Christensen, A., & Sullaway, M. (1984). *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Department of Psychology, Los Angeles.
- Fincham, F. D., & Bradbury, T. N. (1992).

- Assessing attributions in marriage: The relationship attribution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457-468.
- Gottman, J. M. (1994). *What predicts div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processes and marital outcomes*. Hillsdale, NJ: Erlbaum.
- Gottman, J. M., & Levenson, R. W. (1992). Marital processes predictive of later dissolution: Behavior, physiology, and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221-233.
- Gottman, J. M., & Levenson, R. W. (2000). The timing of divorce: Predicting when a couple will divorce over a 14-year peri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3), 737-745.
- Gottman, J. M., & Notarius, C. L. (2000). Decade review: Observing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927-947.
- Greenberg, L. S., & Johnson, S. M. (1986). Emotionally focused couples therapy. *Clinical handbook of marital therapy*. New York: Guilford Press.
- Huston, T. L., Caughlin, J. P., Houts, R. M., Smith, S. E., & George, L. J. (2001). The connubial crucible: Newlywed years as predictors of marital delight, distress, and divor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237-252.
- Huston, T. L., & Chorost, A. F. (1994). Behavioral buffers on the effect of negativity on marital satisfaction: A longitudinal study. *Personal Relationships*, 1, 223-239.
- Huston, T. L., McHale, S. M., & Crouter, A. C. (1986). When the honeymoon's over: Changes in the marriage relationship over the first year. In R. Gilmore & S. Duck (Eds.), *The emerging field of personal relationships*, 109-132. New York: Erlbaum.
- Huston, T. L., & Vangelisti, A. L. (1991). Socioemotional behavior and satisfaction in 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4-73.
- Jacobson, N. S. (1989). The politics of intimacy. *Behavior Therapist*, 12(2), 29-32.
- Jacobson, N., & Margolin, G. (1979). *Marital therapy: Strategies based on social learning and behavior exchange principles*. New York: Brunner/Mazel.
- Karney, B. R., & Bradbury, T. N. (1995). Longitudinal research on marriage. *Psychological Bulletin*, 118, 3-34.
- Karney, B. R., & Bradbury, T. N. (1997). Neuroticism, marital interaction, and the trajectory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075-1092.
- Kayser, K. (1993). *When love dies: The process of marital disaffec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Kitson, G. C. (1992). *Portrait of divorce: Adjustment to marital breakdown*. New York: Guilford Press.
- Kurdek, L. A. (1995). Predicting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from husbands' and wives' conflict resolution sty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1), 153-164.
- Levinger, G. (1979). A Social exchange view on the dissolution of pair relationships. In R. L. Burgess & T. L. Huston(Eds.), *Social exchange in developing relationships*, 169-193. New York: Academic Press.
- Markman, H. J., & Hahlweg, K. (1993). The prediction and prevention of marital distres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 Clinical Psychology Review*, 13, 29-43.
- Markman, H. J., Stanley, S. M., & Blumberg, S. L. (1994).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San Francisco, CA; Jossey Bass.
- Murray, S. L., Holmes, J. G., & Griffin, D. W. (1996). The benefits of positive illusions; Idealiz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satisfaction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79-98.
- Noller, P., Feeney, J. A., Bonnell, D., & Callan, V. G. (1994). A Longitudinal Study of conflict in early marriag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 233-252.
- Riehl-Emde, A. P., Thomas, V. P., & Willi, J. M. (2003). Love: An important dimension in marital research and therapy. *Family Process*, 42, 253-267.
- Rogge, R. M., & Bradbury, T. N. (1999). Recent advances in the prediction of marital outcomes. R. Berger, M. T. Hannah(Eds). *Preventive approaches in couples therapy*, 331-360. Philadelphia, PA, US:Brunner/Mazel, Inc.
- Scott, M. S., Howard, J. M., Michell, S. P., & B. Douglas Leber. (1995). Strengthening marriages and preventing divorce: new directions in prevention research. *Family Relations*, 44(4), 392-401.
- Skaldeman, P., & Montgomery, H. (1999). Impotence and attainment of values among married and divorced couple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30, 143-158.
- Stanley, S. M., Markman, H. J., Perters, M., & Leber, B. D. (1995). Strengthening marriage and preventing divorce: New directions in prevention research. *Family Relations*, 44, 392-401.
- Stanley, S. M., Markman, H. J., & Whitton, S. W. (2002). Communication, Conflict, and Commitment: Insights on the Foundations of Relationship Success from a National Survey. *Family Process*, 41(4), 659-675.
- Sternberg, R. J. (1986). A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93, 119-135.
- Wills, T., Weiss, R., & Patterson, G. (1974). A behavior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802-811.

---

(2005년 4월 7일 접수, 2005년 7월 15일 채택)